

# 첨단 방송 · 영상 기술 ‘한눈에’ ... 방송 · 통신 융합시대 선보여

방송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14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KOBA 2004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관 컨벤션홀에서 열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시대의 첨단 방송기술 및 제품의 경영장을 맘껏 펼쳐 보였다.

글/ 권경희 기자



▲ ‘KOBA 2004’ 전시회가 지난달 19일부터 4일간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관 컨벤션홀에서 ‘방송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화려한 장을 펼쳤다

제14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14th Korea Int'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 이하 KOBA 2004)가 지난달 19일부터 4일간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관 컨벤션홀에서 ‘방송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화려한 장을 펼쳤다.

한국이엔엑스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부, KBS, MBC, SBS, EBS, 한국영상기기연구조합, 한국음향기기연구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영상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련기관과 방송사, 관련단체의 후원으로 열린 KOBA 2004 전시회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방송, 영상, 음향,

조명관련 장비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신기술 도입 및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방송, 영상장비와 음향, 조명관련기기 등의 질적 향상과 관련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KOBA 2004 전시회에는 KBS를 비롯해 소니, 삼아 GVC, 애플, 피니클 등 방송·영상관련 업체와 야마하, 대경바스컴 등 음향업체, 한삼시스템, 삼화양행 등 조명업체에 이르기까지 28개국 602개 업체들이 참여해, 1만여점의 장비를 출품했다.

이번 KOBA 2004 행사에는 국내 방송기술업체들이 개발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장비 및 솔루션 등이



대거 출품됐다. 또 대화형(인터랙티브)TV, 위성방송 관련 품목들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말 그대로 첨단 방송기술 및 제품의 경연장을 맘껏 뽐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코바 무대에 등장하는 공영방송 KBS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지상파 DMB 기술을 관람객들 앞에서 직접 시연해 보여 관심을 집중시켰다.

19일 개막식에는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 안동수 한국방송부사장, 안국정 SBS 부사장, 권영만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유삼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박영삼 한국영상협회 회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 김항진 기독교방송 상무와 주최측인 김충한 한국이앤엑스 회장, 문효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김충진 한국전시협동조합 이사장 겸 한국이앤엑스 사장을 비롯해, 참가업체 대표인 이명우 소니코리아사장, 손삼현 한삼시스템 사장 등 관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디지털 방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 역대 최대 행사 규모

이번 행사는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총 28개국에서 602여개사의 세계적인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1만여점 이상의 기술과 장비를 출품했다. 관람객 규모 또한 역대 최대인 00만여명을 넘어서 더욱 놀라게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이앤엑스측은 특히 “방송 영상 음향 조명산업의 국산화 정책에 맞춰 그동안 해외 출품사 위주의 전시회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사상 최다인 113개사가 참가, 해외 선진 제품과의 비교는 물론,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 앞으로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 증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참여 업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방송영상관련 업체로서는 KBS를 비롯해 소니, 애플, 아비드, 디스크리트, JVC, 피너클, 텍트로닉스, 콰텔, 디지털퓨전, 디지털캠프, 보은전자통신, 삼아GVC, 영도비앤씨, 태남DVI, 컴픽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가했고, 음향 분야에서는 프로텔, 소비코, 야마하, 거산음향통신, 대경바스컴, 동서전자, 삼아무역, 아빅스테크, 영락소리사, 인터엠, 임산업, 정보음향, 태성음향 등이 참가했다. 또한 한삼시스템, 삼화양행, 씨앤씨전자, 동서테크놀로지 등 조명업체들도 이번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 눈여겨 볼 만한 주요 출품 기술 및 신제품

이들 업체들은 방송, 영상장비 분야의 카메라, VTR, 편집관련시스템, 송출, 송신관련기기, 컴퓨터그래픽스, 문자발생기, CATV시스템, 인터넷방송관련시스템, 위성방송관련기기, 조명관련기기 등 700여종 1만여 신제품을 출품, 이번 행사를 첨단 방송기술 제품의 잔치로 만들었다.

특히 4년 만에 KOBA에 참가한 KBS는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지상파 DMB 시연에 나섰다. KBS는 PC에서 지상파 DMB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선보이는 한편, 삼성전자의 수신기에서 직접 지상파 DMB 신호를 받는 과정을 구현해 보였다.

KBS는 관악산 송신소에서 채널12번을 통해 송신한 지상파 DMB 방송신호를 전시장 내 설치한 수신기를 통해 동영상으로 재연하고 특히 교통정보, 웹사이트방송, 문자전송, 정지영상 등



지상파 DMB의 다양한 데이터서비스 기능도 선보였다. 지상파 DMB 시연과 함께 대화형 방송(ITV), HD입체 영상시스템, 넌리니어 편집시스템, 실시간 워터마크 삽입시스템 등의 신기술도 선보였다. 그외 또 퍼스널텔레콤, 프리셋코리아 등 국내 중소기업체의 DAB수신기에서 수신하는 모델 등 여러 지상파 DMB 관련 업체들이 바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다양한 제품군도 선보였다. 지난해 MBC가 DMB시험방송을 선보이긴 했지만 당시는 대부분 외국 제품을 채택했다.

픽스트리도 지상파DMB 시연에 나섰고 넷앤티비는 DMB 제작도구를 출품했다. 참된기술은 위성DMB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이는 등 KOBA에서 DMB 열기가 그 무엇보다 뜨거웠다.

최근 방송산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휴대방송 규격 논란과 관련, KBS 등의 지상파 DMB 시연은 당연한 관습거리로 모아졌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세계적인 방송 기술 조류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국내 방송 기술인들에게 최첨단 방송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주최측은 이번 전시회 참가업체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KOBA 2004 홈페이지(<http://www.koba.or.kr>)를 운영해 전시장 부스배치도, 출품사 인덱스, 출품사 기업 및 제품소개, 품목별 출품업체 현황 등을 자세하게 수록해 CD와 함께 제작했으며, 각 출품사의 홈페이지와도 링크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 국내 토종업체에 주목

외산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방송장비 시장에 새롭게 두

각을 나타내는 토종업체들도 주목을 끌었다. 디지털방송 솔루션 업체인 컴텍코리아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방송 솔루션인 'DABSTM(Digital Audio Broadcast Solution)'을 내놓았다. DABSTM는 최소 인원으로 100여개 음악채널 프로그램을 손쉽게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디티브이인터랙티브는 디지털·데이터방송용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을 선보였고 코난테크놀로지는 '코난디지털아크에 기반한 디지털 뉴스룸을 선보였다.

티브이로직은 국산 HD급 방송용 LCD모니터를 출품하는 등 토종업체들의 방송장비 시장 진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동안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및 각 참가사가 주관하는 방송·영상·음향관련 기술세미나와 각종 시연회가 3, 4층 컨퍼런스센터와 전시장내에서 진행됨으로써 방송·영상·음향·조명기기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19일에는 미국 켈컴사가 휴대방송 시장을 겨냥한 신기술인 미디어플로(MediaFLO)를 국내에 첫 소개하며, 21일에는 DMB 기술업체인 픽스트리가 DMB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이 마련됐다.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기술 정책 및 디지털시대의 방송기술인의 역할 ▲현업을 중심으로 한 방송실무 ▲뉴미디어 분야 등을 주제로 한 방송기술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특히 첫날 열리는 '켈컴의 미디어플로 콘텐츠 딜리버리 시스템' 세미나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데이터방송 서비스 소개' 티유미디어 방송시스템 소개 등도 눈여겨볼 만한 세미나로 꼽혔다. 